



익산소방서,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익산시 26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달 '미래소방관 양성을 위한 직업체험 교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은 직업 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꿈과 재능, 소질과 능력에 따른 미래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관 직업 체험 참여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 설계를 지원하여 장래 소방공무원을 꿈꿀수 있도록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다.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은 현직 소방공무원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솔직·담백하게 소방직업에 대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소방공무원 직업 및 하는 일 소개 ▲채용과정 및 관련학과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책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 많이 형성 돼”

고창군, 지난해 228권 도서 '책 읽는 가족' 고창읍 박기성·고희숙 부부 선정

고창군이 '책 읽는 가족'으로 고창읍 박기성·고희숙 부부를 선정해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수여하는 상패를 전달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족 단위 독서 생활화를 통한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작은도서관 등록 회원 중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기록된 도서 대출, 반납기록 등을 확인해 우수한 이용실적을 가진 가족을 선정했다. 고창군에선 교수해미투작은도서관 이용자 중 다독 가족이 결정됐다. 박기성·고희숙 가족은 지난해 모두 228권의 책을 읽었으며, 유아·아동문학부터 문학, 사회과학, 자연,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즐겨왔다. 박기성·고희숙 부부는 "가족 모두 같이 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하니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고, 책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도 많이 형성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남원교육지원청, MOU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종선)는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수)과 '청소년 농촌체험학습기회 확대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0년도부터 양 기관을 비롯한 남원관내 초·중고와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학생농촌공부프로그램 ▲학생농촌문화프로그램 등 지역청소년과 농촌마을간 새로운 연결지점을 마련, 상호 교류증진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키고 안정적인 정착과 프로그램의 고도화전략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농촌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정보 및 운영지원 ▲프로그램 공급자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의 유기적인 연결지원 등을 추진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귀농체험학교 운영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내 귀농귀촌 예정자를 대상으로 귀농현장 및 실습위주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귀농귀촌정착을 지원하고자 주생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등에서 귀농체험학교를 3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운영한다. ryndrotod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귀농인의 집 입주자, 남원시 귀농·귀촌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교육생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3월 12일까지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nwrefarm@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귀농체 협학교에서는 주요지역 문화탐방과 성공한 귀농인 농장 견학 및 귀농귀촌 정착 설계를 체험·제공하는 내용으로 정착 중인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들의 농촌생활 활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생활개선진안연합회,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개최

5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원, 내빈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행사 제1부에서는 지난 3년간 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를 이끌어온 제13대·14대 박옥희 회장의 이임식과 새로 선출된 제15대 강숙희 회장의 취임식이 이뤄졌으며 제2부에서는 정기총회 및 과제교육을 진행하였다. 취임한 강숙희 회장은 "여대 회장님들의 성과를 잘 이어 받아 농촌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춘생 진안군수는 "항상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진안군에 큰 힘이 되는 생활개선회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행정의 힘만으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 진안



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무풍면,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쌀·라면 전달

무주군 무풍면의 이웃사랑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무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4일 쌀 10kg 9포 및 라면을 구입해 아침에 지역아동센터, 무풍재가노인복지센터에 전달하는 선정을 펼쳤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무명의 주인이 주변의 어려운 곳에 써달라며 무풍면 행정복지센터에 상품권 30만 원을 기부했다. 또 지난해 10월 무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은 관내 소외계층과 독거어르신들에게 경미한 질환에 간단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진통제와 지사제, 소화제 등이 들어있는 구급함을 전달했다. 최동철 무풍면장은 "힘든 시간을 함께 겪어가고 있는 만큼 서로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무풍면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나창호 아침해지역아동센터장은 "지역 아동을 위해 항상



맘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아이들이 이웃의 마음을 느끼며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추진

완주군이 빈집을 고쳐 취약계층에 무상 임대한다. 5일 완주군은 빈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빈집의 증가와 관리 부실때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이나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가를 새롭게 단장해 주거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빈집 및 공가 소유자에게 보수 비용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소유자는 공사금액의 5% 이상 기부해야한다. 지원조건은 의무 임대기간인 5년 동안 무상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조건이다. /완주=이종복기자

남원소방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남원소방서(서장박덕규)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소등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현행 법령은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기록을 3년간 자체 보관해 왔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정기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14일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로 상한액이 10월 21일부로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 이하로 상향되어 강력한 법 집행이 시행된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관련 업체 및 관계자 등에게 언론홍보와 안내문 발송, 전단지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법령개정 사항을 홍보에 나선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사◀◀ 농촌진흥청 <4급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 담당관실 김은숙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